

문 대통령, 신남방정책 '가속도'

인도서 싱가포르로 출국

인도와 관계 격상 추진
2030년 교역액 확대 협의
삼성 신공장 준공식 참석
쌍용차 문제 관심 당부
오늘 리센룽 총리와 회담
한반도 평화 협력 확대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인도 국빈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다음 순방지인 싱가포르로 향했다. 문 대통령은 올 하반기 첫 순방 주제를 '신(新)남방정책'으로 삼으며 실질 협력을 중심으로 한 외교 의연 넓히기에 주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현지시간 오전 10시) 뉴델리 팔람군비행장에서 싱가포르로 떠나며 3박4일간 인도 순방을 마쳤다.

문 대통령은 인도를 떠나 약 5시간을 이동해 이날 오후 싱가포르 창이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오는 12일 리센룽(李仙龍)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해각서(MOU) 체결에 참여한다.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해 기존연설로 양국 경제 발전 구상을 제시한다. 순방 마지막 날인 오는 13일에는 '싱가포르 렉처' 연단에 올라 한반도 평화와 아세안 협력 확대를 주제로 연설할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서남아시아 핵심국인 인도에서 양국 관계를 전방위 격상시키는 방안을 협의했다.

지난 10일 열린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상호



“내일을 향한 혁신 농업... 농업기술박람회가 열립니다” 황규석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들에게 농업과 농촌의 숨은 매력을 알리는 2018 농업기술박람회가 오는 18일부터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고 밝히고 있다.

방문을 정례화하고, 양국 정부 간 고위급 소통 채널을 확대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모디 총리가 오는 2020년 우리나라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두 정상은 대기업뿐 아니라 양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교류를 늘리는 방안도 논의했다. 스마트시티, 전력, 철도, 도로, 항만, 재생에너지 등 인도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하는 안건도 다뤄졌다. 이는 인도의 제조·인프라 부흥책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와 맞닿는다.

특히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를 현재 2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에 관심을 보였다. 두 정상은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신규 협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정상회담을 마친 뒤에는 '한-인도 CEO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했다. 지난 9일 개최된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 이외에 정상이 배석하는 재계 교류 행사가 열리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양국 실질 협력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기업과 관련된 비즈니스 외교도 펼쳤다. 문 대

통령은 지난 9일 인도 최대 휴대폰 생산시설인 삼성전자 제2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취임 후 처음으로 이재용 부회장과 만났다. 문 대통령은 준공식 시작 전 이 부회장과 5분간 접견하며 "한국에서도 투자를 많이 하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튿날 CEO라운드에이블에서는 쌍용자동차 최대 주주인 아난드 마힌드라 마힌드라그룹 회장을 만나 쌍용차 해고자 복직 문제 해결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행사장에서 만난 인도 주요 기업 CEO들에게 "한국에서 사업하는데 어려움은 없느냐"며 의견을 일일이 묻기도 했다. /뉴시스

세계태권도인의 축제, 전주에서

21-24일 2018 전주오픈 국제태권도대회

전세계 태권도인의 축제 '2018 전주오픈국제태권도대회'가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열린다.

강영수 대회조직위원장과 신재룡 전주시태권도협회장, 강동화 시의원, 황관주 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등 대회관계자들은 11일 '2018 전주오픈 국제태권도대회'의 공식 일정을 발표했다.

전주오픈국제태권도대회조직위원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28개국에서 총 2,272명의 국·내외 선수단이 참가, 평소 같고 닦은 기량을 겨룬다.

이 대회는 오는 20일 선수단 등록을 시작으로 21일 개회식과 A매치 품새경기, 경연품새경기, 22일에는 A매치 겨루기가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A매치 '품새' 경기는 아시아태권도품새대회 우승자 배용신 선수와 광주오픈국제태권도대회 우승자 김

철환 선수 등 세계 최정상 선수들이 출전한다.

또, A매치 '겨루기' 경기에는 전국 태권도원배태권도대회 우승자 마민창 선수와 중국선수권태권도대회 우승자인 리우쓰지아, 국무원컵일본선수권대회 우승자인 류치이카와(홍콩) 등 선수들이 격돌한다.

이외에도 조직위는 23일 해외선수단을 대상으로 품새세미나와 시범세미나 그리고 전주 한옥마을 탐방하여 전주의 전통문화를 알리고 대회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무주 태권도원을 투어 한다.

신재룡 대회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대회는 참가신청 접수기간 전부터 해외 태권도 수련생들의 관심이 뜨거웠으며 전주를 세계에 태권도 문화도시로서 알리는데 그 의미가 크다"며 "이번 대회가 세계태권도인의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송효철 기자

농생명 스타트업 발굴 강화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20일까지 기관연계 참여기업 모집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전북센터)가 농생명 스타트업 발굴 강화에 나선다.

전북센터는 10일, 도내 농생명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지원을 위한 '2018 농생명 기관연계 융복합형 스타트업 발굴·지원사업' 참여기업을 20일 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주요 지원 사항으로는 ▲성장기업분야(디자인 및 마케팅 고도화) ▲스타트업분야(시제품 및 사업화) ▲공통분야

(특허·성분 등 인증취득지원)로 8개 기업에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성장기업분야 지원기업의 경우 혁신기관 추천서가 필요하다.

참가자격은 공고일(6월 29일) 현재 도내 소재 농생명 기업이어야 하며, 방문 또는 이메일(2580gill@gmail.com)로 접수가 가능하다.

문의는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산업실(063-220-8911, 8924)로 하면 된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민간위탁사무 성과 평가 결과 평균점수 상승 | 31개 중 21개 탁월·우수 등급

전북도는 2017년도 민간위탁사무를 대상으로 실시한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성과평가는 전라북도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2017년 민간에 위탁, 추진했던 총 31건의 위탁사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전문기관 위탁평가방식으로 지난 2월부터 5개월 동안 실시했다.

31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S등급(탁월) 6개(19.4%), A

등급(우수) 15개(48.4%), B등급(보통) 9개(29.0%), C등급(미흡) 1개(3.2%)이며, 평균점수는 84.3점으로 전년도 83.5점에 비해 0.8점 상승했다.

전년대비 S등급은 동일하고 A등급은 6.5% 상승한 반면, B등급은 6.5% 감소하는 등 평가성과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S등급(탁월)을 받은 민간위탁사무로는 전북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운영, 전북 광역치매센터 운영, 도립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등 6개 사무가 선정됐

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운영, 전북 농업인회관 운영은 2년 연속 S등급(탁월)을 획득, 특히 전북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도립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전북 자연환경연구소 운영은 3년 연속 S등급(탁월)을 획득하여 사무 추진체계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도는 이번 평가결과를 내년도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선정 시 반영하

고 아울러, 올 하반기에는 부진사무 사무조정 및 사무별 개선사항(31개 사무, 84건)의 개선 이행에 집중,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최병관 도 기획조정실장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연내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2019년도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선정 시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익산시 법정소송끝 69억 손배

익산시가 위탁업체의 보조금 인상을 요구받지 않다가 결국 법정소송 끝에 69억원에 이르는 대 손해배상을 떠안았다.

익산시는 최근 왕궁가축분뇨처리장 위탁 업체인 뉴위터와의 소송에서 패소, 69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된 것.

뉴위터는 가축분뇨처리장을 가동하기 위해 전기료와 슬러지 처리비용 등이 증가한데 따른 단가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 업체는 총 84억 원이 추가 투입됐다며 익산시에 단가 인상을 요구해왔

지만, 시는 당초 계약에 인상을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는 만큼 줄 수 없다고 버텼다.

결국 소송을 청구하게 된 뉴위터는 대형 로펌을 선임해 가축분뇨처리장을 가동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투입돼야 하는 비용까지 반영하지 않았다는 익산시의 행정처분이 잘못됐다고 대응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1심 법원은 익산시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고법과 대법원은 뉴위터의 손을 들어줬다.

익산시는 소송 결과에 따라 예비비 69억 원을 뉴위터에게 건네며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떠안게 됐다. /뉴시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